

# 생업전선으로... 30~40대 전업주부 취업 급증

경기 불황과 고물가 탓에 맞벌이 주부가 늘고 있다. 출산·육아를 전담했던 전업주부들이 취업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것.

17일 광주의 사랑방취업지원센터가 올해 1~11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 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총 485명의 구직자 가운데 355명이 여성으로, 전체 구직자 중 73.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5%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1년 272명, 2012년 302명에 이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사랑방지원센터  
올 취업성공 355명  
작년보다 17.5% 증가**

**60%가 30~40대 주부  
대부분 생계위반 채취업**

연령대별로는 30대 여성이 총 118명으로 전체 여성 구직자의 33.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4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해 압도적인 증가세

를 보였다.

40대 여성의 구직활동도 활발했다. 40대 여성은 94명으로 전체의 26.5%에 달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20대 여성(75명), 50대 여성(49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광주지역 여성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34만 2000명, 경제활동참가율은 46.3%였지만 올해 반기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32만 7000명으로 1만 5000명 줄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48.9%로, 2.6%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구직자의 증가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 불안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결혼 이후 가사·육아에 전념하던 주부들이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재취업을 위해 직접 취업 전선에 뛰어 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여성들의 경우 직업 훈련을 받는 자체가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유니언 사랑방취업지원센터 취업 컨설턴트는 “물가는 계속 치솟고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난 가운데 가정의 수입만으로는 살림하기가 팍팍한 계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주부들이 맞벌이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방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단계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구직자 적성 파악 및 계획 ▲2단계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 과정 ▲3단계 취업 알선 및 서류클리닉, 동행면접 등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한국 쌀음료 중국 입맛 잡는다

### aT, 복건성 신화수서 시장개척 임업·관측행사

한국산 쌀음료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 말까지 중국 복건성의 유력 대형유통매장인 신화수서에서 ‘한국산 쌀음료 시장개척을 위한 신규입점 및 관측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화수서 복건성의 최대 유통업체로 80여개 매장을 보유한 대형매장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 음료 수출 2위 국으로 최근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 aT센터는 한국산 쌀을 가공한 고부가가치 제품인 쌀음료를 중국의 각 지역 유력 대형유통매장에 입점·관측되도록 지원해 대 중국 음료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aT는 한국 음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복건성의 유력 대형 유통매장 입점을 시작으로 앞으로 내륙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해 쌀음료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에 300만 달러 정도 수출되는 쌀음료 1.5ℓ 한 병에는 약 150g의 국산 쌀이 함유돼 있어 60t가량의 쌀이 중국에 수출되는 효과가 있다.

박종서 aT 식품수출이사는 “현재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음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쌀음료를 비롯한 한국산 농산물 가공 비율이 높은 제품을 지원해 수출과 농업소득과의 연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기업·상가 등 강제 절전 안한다

###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정부는 올겨울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작년과 달리 기업, 상가 등에 대한 강제 절전이나 난방 온도 제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평상시에 전기요금을 약 30% 깎아주고 전력수요가 많은 날과 시간대에 쓰면 3~4배의 할증요금을 물리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겨울에 2011년 ‘9·15 순

한 단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력난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는 내년 1월 넷째 주로 8050만kW에 이르지만 공급 능력은 8595만kW로 예비전력이 500만kW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로 가동 중단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이상 설비용량 각 100만kW)의 재가동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 한파와 발전기 돌발 정지 등으로 수급이

불안할 수 있지만 450만kW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동 중단된 원전 3기는 케이클 교체 등 후속조치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안전성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조만간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의 에너지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자율 준수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계속 단속한다.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옥외 경관 조형, 홍보전광판을 끄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 따뜻한 연말...기업들 온정 나누기



18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무역회관 대연회장에서 기자기자들 광주 1공장 직원들이 ‘독거노인 난방비 마련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호프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기자들은 이날 수익금 1100만원을 (사)참사량사회복지회에 전액 기부했다. (기자채 제공)



18일 광주시 광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산티날정대’ 행사에 참여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임직원들이 이동센터 아이들에게 과자 등 선물을 전달하고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삼성전자 제공)

## 美 양적완화 축소, 국내경제 영향 제한적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 완화 축소가 경기 회복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오히려 이번 발표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국내 경제의 선순환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 완화에 신중국 시장의 자금 유출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금융기관은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발표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 “미국의 고용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경기 회복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했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선순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

으로 자본유출입 압력 등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안정적인 반응에 일단 안심하면서도 급격한 자본 유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갖고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메시지다.

기재부, 한은 등 관계 당국은 이날 오전 미 언론 발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별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75.65 (+1.02)	▼ 코스닥지수 484.17 (-1.48)	▲ 금리 (국고채 3년) 2.89% (-0.01)	▲ 원·달러 환율 1060.10원 (+8.80)
----------------------------	---------------------------	--------------------------------	-------------------------------

[국내개발, 국내생산] 특허 제10-2013-0103125

# 쫄그리고 일 할땐 역시 쫄그리

## 무릎통증 예방

삼각쿠션이 무릎관절 하중부담 경감과 무릎보호역할

삼각쿠션과 방석의자 일체형디자인  
몸에 딱 감기는 인체공학적 구조로 편안함

허리벨트형으로 편안한 착용감

MBC NEWS '무릎걱정 디세오'

MBC NEWS 발일 할 때 무릎에 체중 7배 전해져

**쫄그리 착용이 필요할 때**

- ☑ 쫄그리고 발일 작업 시
- ☑ 쫄그리고 산업체 응접 또는 조리작업 시
- ☑ 쫄그리고 하우스 작업할 시
- ☑ 쫄그리고 레저 등 낚시 할때
- ☑ 쫄그리고 농식품 가공 작업 시
- ☑ 쫄그리고하는 그외 모든 작업 시

[제조 판매] (주)에엔비 [본사대표전화] 062)652-2587 [광주전주출판] 해원코퍼레이션 062)603-1801 [판매처] 전국의 농민약국, 혈물점, 농자재판매점 등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 결혼 정보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서울대학교총동맹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추천 회원	재혼
<b>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b> 27~45세 <b>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b> 28~47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b>사법, 행정고시 합격자</b> VIP <b>삼성, 현대, LG 직원</b> 28~47세 <b>은행원, 연구원</b> 29~49세 <b>대(중,소)기업 직원</b> 27~48세 <b>사업가, 자영업</b> 29~39세 <b>세무사, 연구원</b> 29~48세 <b>국영기업체 직원</b> 29~39세 <b>교사, 교수</b> 28~49세	<b>전문직 희망 여성</b> 25~38세 <b>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b> 26~41세 <b>간호사, 유치원 교사</b> 27~42세 <b>의사, 약사, 교사</b> 25~39세 <b>변호사, 회계사, 변호사</b> 26~39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b>정부투자기관 직원</b> 25~38세 <b>간호사, 은행원</b> 26~47세 <b>학원(음악)원장, 감사</b> 27~42세 <b>스튜어디스, 영양사</b> 26~42세 <b>미스코리아, 미스전북</b> 27~36세	<b>의사, 변호사</b> 32~65세 <b>국영기업체 기관장</b> 52~66세 <b>공무원, 교사, 교수</b> 35~65세 <b>대기업 간부</b> 36~59세 <b>회사원, 자영업</b> 33~67세 <b>'무출산 여성' 희망</b> 31~58세  <b>VIP 희망 여성</b> 29~53세 <b>학원(음악)원장, 감사</b> 27~63세 <b>공무원, 교사</b> 32~58세 <b>간호사, 회사원</b> 29~48세 <b>자영업, 가사</b> 35~64세 <b>'우자녀 남성' 희망</b>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민주시 사당동) (063) 275-7766